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佛教新聞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6년 8월 18일 (2012년 / 단기 4345년 음력 7월1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40호 토

향은 고요한 마음의
벗이 되어 드립니다.
www.cwh.co.kr 취운향당

■ '쇄신입법' 기획/ 카드결제 시행 사찰 살펴보니

신도들 '매우 만족' 종단 신뢰도 '향상'

조계종 쇄신입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재정 투명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도입도 그런 맥락이다. 수입의 근거를 명확히 남겨 새는 돈을 막자는 취지다. 무엇보다 신도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다. 신행문화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기존의 관행과 정서에선 아무래도 생소한 제도이다 보니, 어떻게 시행하고 운용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주지 스님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일부 사찰은 이미 카드결제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수덕사 비롯 보문사 용화사 낙산사 흥천사 등 기도비 · 입장료 결제

선본사 주지 덕문스님 "부임하는 곳마다 수입 30% 증가했다"

카드 소비패턴 정착 과중되는 회계업무 해소 수수료율 인하가 '숙제'

총무원 재무부에 따르면 교구본사인 예산 수덕사를 비롯해 경산 선본사, 강화 보문사, 의왕 용화사, 양양 낙산사, 서울 흥천사에선 카드로 기도비와 입장료 등을 낼 수 있다. 일부 사찰은 입장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결제의 장점과 효과, 종단 집행부가 지원해야 할 내용 등에 관해 살펴봤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지운스님)가 카드 결제를 시행한 때는 지난해(2011년) 10월. 입장료 지불과 함께 인등을 켜거나 불교용품을 살 때에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 발단은 '민원' 때문이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카드를 받는데 절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느냐'는 지청구에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이왕지사 확실하게 서비스를 베풀자는 취지에서 전면 실시를 결정했다. 물론 마음은 먹었지만 과연 그게 쉽게 될까 미심쩍었는데, 절차는 의외로 간단했다.

주거래은행에 전화 한통 넣었을 뿐인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종단 소속 사찰이라면 어디나 갖고 있는 '고유번호증(비영리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해 몇 가지 서류를 접수하니, 곧바로 승인이 떨어졌다. 매표소, 황하정루 찻집, 선(禪) 미술관 등에 설치된 결제단말기는 은행이 무상으로 설치해준 것들이다.

변화는 순식간이었다. 그만큼 대세였다. 시행한 지 10개월만에, 현금과 카드 수익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다. 다만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종무실장의 설명이다. 현금으로 낼 돈을 카드로 대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뜻이고, 수수료 액수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그래도 신도와 참배객들이 만족감을 느끼니 덩달아 뿌듯하다. 불사금의 경우 카드로 긁더라도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어 또한 이익이다. 무엇보다 진정 사찰이 중생을 보듬는 휴식처라면, 수지타산 이상의 가치를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정 투명화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표현이므로, 사찰과 종단의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은 자명하다.

반면 눈에 띄게 수입이 늘어났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산 선본사 주지 덕문스님은 선본사를 비롯해 강화 보문사, 의왕 용화사 등 주지로 부임하는 절마다 신용카드 제도를 받아들였다. "카드를 통한 소비패턴이 정착되면서 모든 사찰에서 수입이 30% 가량 증가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스님은 불교용품점에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매출에 신기원을 열었다. 책이나 기념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스캐너로 찍으면 수입이 실시간으로 잡힌다. 재고 파악에도 용이하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방법 그대로다.

서울 흥천사 주지 정념스님도 선구자 격이다. 스님이 복원을 일궈낸 양양 낙산사가 어쩌면 최초다. 카드 결제를 시작한 지 6년이 됐다. 심지어 기왓장 한 장도 카드로 보시할 수 있다. 정념스님은 "사실상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간소한 수속을 강조했다. 게다가 웬만해선 현찰을 안 갖고 다니는 게 요즘의 풍토다. 그런데 고요하고 정갈한 사찰을 거닐다보면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곧 보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익하다는 주장이다. 흥천사 신도들도 신기해하면서 반가워한다. 궁극적으로 재정과 관련한 시비를 일체 차단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정념스님은 "돈 문제에 관한 한 불교가 어느 종교보다도 깨끗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계기"라며 종단 차원의 전개를 당부했다.

▶2면에 계속

수덕사=장영섭 기자

'공생과 상생'의 2012 만해축전 현장 6면
'다큐 하루' 육지장사 건강템플스테이 12면

'민족의 혼 그릇' 추모비 앞에서 헌향하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앞줄 가운데). 이 비는 독립운동을 펼치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순국하신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독립투사들 숭고한 정신 되새겨야"

총무원장 자승스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 순국선열유족회 격려 "예우 제고" 관심 표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옛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다.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은 총무원장 스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격려금도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서대문형무소는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본격적으로 국권 침탈을 시작하면서 만든 시설이다. 1908년 경성감옥이란 이름으로 개설됐다가 1912년 서대문형무소로 명칭을 바꿨다. 1987년 경기도 의왕으로 옮기기 전까지 교도소로 사용됐다. 해방 이후에는 독재정권에 항거하던 사상범을 가두는 감옥으로 쓰였다. 1998년 역사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사형장과 수용시설 전체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일본 경찰들이 자행했던 끔찍한 고문 현장도 보존해 두었다. 14일 오후2시 역사관에 도착한 총무원장 스님은 추모비 '민족의 혼 그릇'에 헌화와 묵념을 한 뒤, 박경목 역사관장의 안내에 따라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임원들을 만난 총무원장 스님은 금일봉을 전달하며, 애국지사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순국선열유족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해방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들의 혈육으로 이뤄진 모임이다.

유금종 유족회장은 총무원장 스님과의 면담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열악하고 외로운 환경에서 외려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대의를 위해 헌신했던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가가 후손들에 대한 보훈사업에 좀 더 힘쓸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방문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법광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스님 등도 동행했다.

한편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3월 삼일절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제주도 봄나들이 약속을 지킨 바 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社 告

불교신문 지면을 개편합니다

독자들의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

■탁효정의 왕실원당 이야기 … 15면
■신간 서적 '작가의 명언보기' … 9면
■문태준의 詩心 … 11면
■구미래 불교민속탐구

불교신문의 가을의 입구에서 지면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발빠르게 독자들에게 불교소식을 전하는 한편 필력(筆力)과 실력(實力)을 겸비한 외고 필자를 모셨습니다.

탁효정의 왕실원당 이야기를 신설하고, 문태준의 詩心과 구미래 불교민속탐구(매주 수요일)는 독자들의 호응에 맞춰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소식과 독자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 사부대중을 강화하고 지대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간 서적에서 필자들의 핵심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작가의 명언보기 코너도 문을 엽니다. 이와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꽁보리팟'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불교신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면개편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신문은 이번 지면개편을 통해 독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것입니다. 종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매체로서 그 위상을 더욱 올곧게 세워나가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경책과 격려로 더욱 변화하고 발전하는 불교신문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교신문

불자선수 맹활약 런던올림픽 폐막

전세계 204개국 1만1000여명이 참가한 지구촌축제, 런던올림픽이 지난 13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폐막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따낸 메달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최종 종합순위는 5위에 올랐다.

한국의 메달행진에는 불자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메달리스트 가운데 금메달에만 10명의 불자선수들이 거머쥐었다. 이기흥 런던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사격과 양궁, 펜싱 등 집중력이 필요한 경기에서 불자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불교신문은 이번 런던올림픽 취재를 위해 본지 엄태규 기자를 지난 7월28일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런던현지에 파견, 생생한 현장을 보도했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SATURN
새턴정보통신(주)
사찰 내 전기화재예측·전력 절감 전문기업

● 지능형 분전반 : 분전반 내의 누전, 합선, 전선의 과부하, 온도, 정전, 연기 등 이상 징후 발생시 사전 감지를 통해 실시간 방재센터 및 스마트폰으로 통보하여 전기 화재를 미연 방지
● 아크스파크경보기 :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 아크와 스파크가 발생시 실시간 감시 및 스마트폰으로 전송함으로 원격에서 해당 전원을 즉각 차단
● 통신형누전차단기 : 누전차단기의 기본기능인 과전류, 합선, 누전 등이 발생시 원격에서 차단기를 ON 또는 OFF하는 기능
● 경 제 적 효 과 : 전기료 절감 연10% 이상
(지능형분전반 내의 차단기를 스마트폰으로 ON/OFF를 시킴으로 전기 화재 위험과 전력절감 효과, 다발성 낙뢰 발생 시 불필요한 전원차단으로 장비보호 효과)

※ 미국방화협회(NFPA) : 전기화재의 약 80%가 아크(Arc Fault)로 인해 발생

새턴정보통신(주) TEL : 1688-9450 www.saturninfo.co.kr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인증 업체
SATURN